광주교육청 내년 학교 급식 질 높인다

장휘국 교육감 식품비 단가 2.07% 인상키로

시-교육청 급식비 분담 비율 8-2 제안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급식의 질을 높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실 급식'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교육청은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분담률도 높여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학교급식의 식품비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동결됐던 식품비를 전년도에 견줘 2.07% 인상하는 등 급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부실 급식'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의 식품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평균 인상률을 반영해 책정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최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무상급식 질 저하 문제를 제기한 데 따라 내놓은 대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광주교육청은 식품비 외 급식 단가를 책정할 때 포함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올 들어 1.03% 인상한 바 있어 동결키로 했다.

올해 광주의 무상급식 한 끼 단가는 초등학교(153개교)의 경우 학생수를 기준으로 식품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1930원(1200명 이상인 경우)~2930원(100명 이하인 경우) ▲중학교(91개교)는 2330원(1201명 이상)~3550원(100명 이하) 수준에서 책정된 상태다.

교육청 방침이 반영될 경우 내년에는 ▲초등학교 1960원(1201명 이상인 경우)~2980원(100명 이하인 경우) ▲중학교는 2370원(1201명 이상)~3610원(100명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러나 급식 단가를 올리더라도 학생수 감소(2016년 14만2362명→2017년 13만8146명) 영향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419억2700만원)를 제외하면 올해(571억6100만원)보다 감소한 560억72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학교 급식 식품비 예산의 70%를, 교육청은 30%를 부담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급식 종사자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같은 점을 들어 이날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급식 식품비 예산 분담률(70%)도 80%로 높여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올 들어 식품비와 운영비를 모두 인상해 급식 단가를 조정한 만큼 내년도 상향 조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2015~2016년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든 예산은 2조6390억원으로 지난해 2조5195억원보다 4.7% 늘어났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지원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7.9%인 세종으로 나타났고 전남 87.2%, 전북 83.6%, 강원 82.0%, 광주 74.3%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영양있는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게 된 무상급식이 오히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대부분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가까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급식의 질적 저하 우려가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무상급식이 현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54	달뜸	18:26
해짐	19:19	달짐	04:26

야외활동 주의

가끔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25/35	보 성	구름많음	23/33
목 포	구름많음	25/33	순 천	구름많음	26/34
여 수	구름많음	26/32	영 광	구름많음	24/33
나 주	구름많음	24/35	진 도	구름많음	23/32
완 도	구름많음	24/33	전 주	구름많음	24/34
구 례	구름많음	23/34	군 산	구름많음	24/33
강 진	구름많음	23/33	남 원	구름많음	23/34
해 남	구름많음	23/34	흑산도	구름많음	24/30
장 성	구름많음	22/3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서해남부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남해서부	먼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남해서부	먼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1:22	06:51
	13:19	18:48
여수	08:11	02:21
	20:53	14:12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4/35	24/34	24/32	24/32	23/32	23/31	23/31

선거비용 반환명령소송

장휘국교육감 일부 승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게 됐다.

법원이 광주시선관위의 선거보존비용 반환 처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장 교육감이 광주시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미보전사유 발견통지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교육감이 선거홍보 대행업체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서·견적서 등을 조작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허위서류로 편취한 1억3993만원을 반환하라고 지난 2015년 7월 통보했다.

이에 장 교육감은 총액 계약 방식으로 선거홍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출했다며 허위보고해 선거비용을 과다보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장 교육감에게 반환명령한 1억3993만원 중 813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억3180만원은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지난 4월 전남도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찔한 퇴근길…광주 화물차 추돌 화재사고 16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화물차 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부상당했으며 일시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메르스 감염' 허위신고 광주 30대 실형 선고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 구속했다.

사회 혼란을 악용해 법 집행을 피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재판을 받던 김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2심은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전국에서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극심했고 정부는 사태를 신속하게 종식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김씨는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에서 혼란을 악용, 허위신고를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과 보건소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4시간 동안 수색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되고 보호관찰 대상이 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환자라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늘어가는 아동학대…주범은 친부모

광주·전남 지난해 1011건…3년새 두배 늘어

최근 20대 여성이 친 조카를 학대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가정해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광주와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3년 490건(광주 118건, 전남 372건), 2014년 805건(164건, 641건), 2015년 1011건(253건, 7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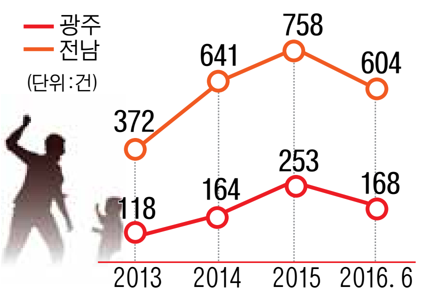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1~6월)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광주 168건, 전남 6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7%(45건)와 42%(252)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친부와 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89건(52.8%),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58건(34%)을 차지하는 등 전체 아동학대의 86.8%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친부 244건(40.4%), 친모 174건(28.8%) 등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69.2%에 달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중복학대가 295건(광주 71건, 전남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 164건(43건, 121건), 정서학대 151건(13건, 138건), 신체학대 113건(39건, 74건), 성학대 49건(2건, 47건) 순으로 분석됐다.

■ 광주·전남 아동학대 건수



〈자료 : 광주·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은정 팀장은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부부간의 갈등과 가정환경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IMF 이후 가정해체와 그로 인한 재혼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는 학대아동을 일시적으로 치료·보호할 쉼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남지역 학대아동 쉼터는 5개소로 정원은 모두 35명에 불과하다. 특히 남성 전용 쉼터는 1곳뿐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TogeTher 광산구

빈병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불 가능한 유형

재사용 병(환불가능)	재활용 병(환불 불가능)
공병 40원 환불 — 병뚜껑과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 경우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유리 — 유리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경우 (드링크 병, 소형 주스 등)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6년 기준)

	190ml 미만	190ml 이상 ~ 400ml 미만 소수, 맥주, 콜라, 사이다 등	400ml 이상 ~ 1,000ml 미만 중·대형 맥주 등	1,000ml 이상 대형 주스류 등
현행	20원	40원	50원	100원 ~ 300원
변경(2017년)	70원	100원	130원	350원

※ 2016년 7월 1일부터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합니다.

| 문의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062-960-8486

빈병 보증금 제도란?

▶ 소비자는 유리용기의 제품을 구입한 후 슈퍼,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에 반환하면 빈용기 보증금 환불가능.
▶ 빈병이 파손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 반환할 경우 보증금 환불이 제한됨.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수량과 상관없이 환불가능)